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가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안다섬* · 장동헌** · 문수희***

*장수군 농업경영인 ·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강사

Effect of Stress of Young Farmers on Farming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the Farming

An, DaSum* · Jang, DongHeon** · Moon, SooHee***

*Agricultural Manger, Jangsu County

**Professor, Division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Food Market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ivision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Food Market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young farmers' stress on farming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the Farming. The analysis targets young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and engaged in agriculture among 4H members nationwi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ess of young farm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or, and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family composition and community activities. In addition, family stress and social stress showed significant results according to the type of young farmers, community activities, and economic stress according to the type and family composition of young farmers. And the stress of young farmers had a positive (+) effect on Intention to Leave the Farming, and family and social stress also had a positive (+) effect on Intention to Leave the Farming. In addition, the stress of young farmers affected farming satisfaction, and family stress and social stress also had a negative (-) effect on farming satisfaction. Therefore, efforts will be needed to improve farming satisfaction and reduce Intention to Leave the Farming by reducing stress among young farmers.

Key words : Young Farmers, Young Farmers Stress, Farming Satisfaction, Intention to Leave the Farming

I.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농업인구의 이탈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평균 14,383천명(1970-1974년)에서 평균 2,409천명(2015-2019년)으로 거의 83.1%가 감소하였다. 또한 농가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되었는데, 2015~2019년 평균 농

가인구수 중 60세 이상은 1,732천명이고, 20~39세 인구는 243천명으로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졌다(KOSTAT, 2020). 이러한 농촌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이 농촌의 인구감소와 과도한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위한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An, 2021).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2020년)」을 제정하고, 영농자금, 영농기반지원, 네트워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유입이 다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청년

Corresponding author : Moon, SooHee

Tel : 063-270-2532

E-mail : msh@jbnu.ac.kr

농업인은 농업·농촌에 불안정한 정착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농이 이루어져 왔다. 농업에 뜻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북은 2019년 청년농부 26명을 선발했으나 중도 포기가 16명이었고(Hankyoreh, 2020), 부산은 2014년 400명에 육박하던 청년농업인이 2년만인 2016년에 140명으로 감소하였다(Pusan, 2018). 또한 농림업 취업자 중 20대 청년농업인의 숫자가 급감하고 탈농 현상이 심화되어 2000년 74천명에서 2006년에는 26천명으로 불과 6년 만에 1/3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An, 2021). 특히 농림업 신규취업자의 수를 고려하면 매년 약 5,000명~10,000명의 농림업 취업자가 이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Choi et al., 2007).

이러한 점에서 청년농업인은 농업경영의 불안정, 네트워크, 주거와 교육 등 문제에 직면하고, 이것은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림업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업종으로 전체 직업군에 비해 높은 자살 수준을 보인다(Yoon et al., 2011). 이러한 점은 농업인이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하며, 청년농업인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청년농업인의 연구는 육성정책, 학습/교육, 영농다각화(Jung, 2009; Lee, 2014; Kim, 2017; Han, 2019; Lee, 2019; Yi, 2019),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 가족지지(Gweon & Jang, 2021)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농업인은 농업 이외에 농촌의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착과정에서 영농지속이 불안정하면, 영농의 포기나 이농이 발생하게 된다(Choi et al., 2007; Gweon & Jang, 2021).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를 가족,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여 영농만족, 이농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는 향후 청년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와 영농만족, 이농의향의 고찰

1.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되는 상황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거나 개인의 능력으로 환경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응의 결과(Kim,

2011), 물체에 가해지는 강압적 작용에서 인간에게 발생하는 강압적 작용으로, 외적 작용에서 내적 반작용, 즉 반응현상(Ahn, 1997), 어떤 자극에 대한 개체의 개별적인 심리적(인지, 행동, 감정), 생리적 반응상태를 일컫는 것(Chung, 2001)으로 본다. 따라서 포괄적인 스트레스의 개념은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로 인한 외부의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An, 2021).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와도 연관되는데, 직무는 직업, 작업, 조직으로도 사용된다(Choi et al., 2013).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자가 받게 되는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Yoo & Park, 2004), 그리고 자극의 개념, 반응개념, 자극과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 개념으로 이해하고, 스트레스의 요인을 내적인 것(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 내 직무의 역할, 대인관계)과 외적인 것(물리적 환경과 가족, 다른 조직과의 경쟁)으로 구분된다(Kim & Kim, 2021).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자극을 통해 발생하는 생체 반응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An, 2021).

농업인의 스트레스는 근로자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는 차이가 있다. 농업인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거나 부담되는 투자자본에서 오는 경제적 스트레스나 업무의 이중적 부담 등 직업군으로서 큰 위험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다(Ahn, 2021). 농업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노동의 참여유형, 직업의식, 노동부담, 부부권력으로 보기도 하며(Kim, 2011), 농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거나 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개인의 요구가 환경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생리적 및 심리적 불균형의 상태로 보고, 역할과다, 기술정보, 외모손상, 역할갈등, 경제와 시설관련, 작업환경으로 보기도 한다(Cho et al., 1999). 또한 농업인의 업무 스트레스는 노동시간 및 강도, 작업환경, 자부심과 사회적 평가, 사회적 지지, 사회적응 및 안정, 사회적 고립, 환경 및 기후조건, 경제적 문제, 불확실성, 정부의 정책, 건강문제로 다루기도 한다(Lee et al., 2011).

청년농업인의 특성상 직장 상사나 동료는 없으므로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 중 관계갈등의 항목에서 상사나 동료를 가족으로 보았고(An, 2021), 항목은 이해도나 의사결정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스트레스를 항목으로 설정한 부가적 이유로 가정갈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Park et al., 2018)와 역할갈등을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설정한 연구(Lee, 2008)를 토대로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 요소 중 가족 스트레스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를 청년농업인이 영농활동과 더불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일반 환경 속에서 외부의 자극을 통해 발생하며, 청년농업인이 생체적으로 감지한 개인의 인식이나 느낌의 반응 결과로 크게 가족,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로 규정하였다(An, 2021).

2. 영농만족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중요한 변수인데, 이것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An, 2021).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직무만족의 주체를 근로자로 보거나(Kim & Baek, 2014), 조직 내에서의 개인을 주체로 보고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심리상태이다(Lim, 2021).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태도로서, 업무와 조직에 대한 평가에 반영된 애정적 반응 또는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된 반응이다(Kang, 2006). 또한 직무만족을 조직에서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족하게 되는 직무에 대한 긍정·부정적 감정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내·외적 욕구의 정도에 따른 반응을 의미한다(Lee, 2021).

따라서 영농만족이란 청년농업인이 영농활동과 더불어 맡은 직무들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영농에 대한 가치나 신념, 태도, 마음가짐과 욕구들을 평가하여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정서 반응의 결합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An, 2021).

3. 이농의향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이직이나 이직의도를 다루고 있어, 청년농업인의 이직을 이농으로 규정하였다. 직업을 기준으로 한 이농은 농업을 그만두고, 지역이동과는 별개로 농업에서 떠난다는 뜻이고, 지역을 기준으로 한 이농은 농업의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옮겨간 것을 의미하며(Park, 1992), 이농을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확정적, 일시적, 유동적 이농으로 시간에 따라 구분하고, 생리적, 병리적 이농으로 상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Bae, 1979). 또한 이농을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 주거생활을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농의 형태를 항구적 이농, 일시적 이농, 이민 등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Kim, 1996). 그리고 이농의사를 전원주택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촌의향의 정도를 의미한다(Yoo & Go,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농이 직업을 기준으로 하여 농사를 그만두고 농업에서 떠남이라는 의미로 보았지만, 농업의 특성상 투자자본이 많고 부채 등으로 인해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향후에 청년농업인이 이농할 의향으로 보았다(An, 2021).

III. 연구모형과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가족, 사회, 경제적)가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Figur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설정은 Yoo & Park(2004), Park et al.(2012), Kim & Kang(2013), Lee & Lee(2013), Jung(2015), Lim(2021)을 참조하였다. 가설1은 청년농업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영농만족, 이농의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가설2는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가 이농의향, 영농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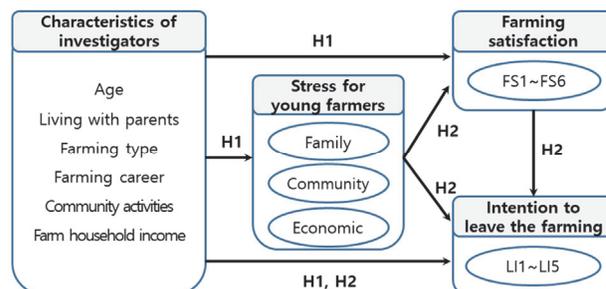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 설문문의 구성

청년농업인의 설문구성은 Table 1과 같다. 스트레스는 가족스트레스(7문항), 사회스트레스(7문항), 경제스트레스(5문항) 등 19문항이며, 영농만족은 6문항, 이농의향은 6문항 그리고 조사자의 특성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와 영농만족, 이농의향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며, 영농만족은 점수가 높을수록 영농만족이 높고, 이농의향도 점수가 높을수록 이농의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1. Composition of survey questions

Division		Questions	Scale	Cited Literature
Stress for young farmers	Family	SF1, SF2, SF3, SF4, SF5, SF6, SF7	Likert 5	Kim(1982), Park(2005), Baeg(2005), Choi et al.(2007), Kim(2011), Lee et al.(2011), Yoo et al.(2017), Jeong & You(2019)
	Community	SS1, SS2, SS3, SS4, SS5, SS6, SS7		
	Economic	ES1, ES2, ES3, ES4, ES5		
Farming satisfaction	FS1, FS2, FS3, FS4, FS5, FS6	Park(1999), Lee & Lee(2013), Lyu(2016), Lee(2021), Lim(2021)		
Intention to Leave the Farming	LI1, LI2, LI3, LI4, LI5	Sin(2010), Yoo & Go(2015), Lee(2020)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ors	Age, Living with parents, Farming type, Farming career, Community activities, Farm household income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 중 가족은 농업활동의 이해(SF1), 영농활동에 대한 가족간섭(SF2), 가족간의 갈등적 분위기(SF3), 노력과 열정에 대한 가족의 존중과 신임(SF4), 영농계획의 조정권한(SF5), 작물재배 의사결정의 권한(SF6), 자금관리의 권한(SF7)이며, 사회는 농업의 인식과 평판(SS1), 차별이나 불이익 경험(SS2), 이웃이나 기존주민과 갈등경험(SS3), 지역내 인적 인프라 부족(SS4), 사회적 고립감(SS5), 지역내 교육과 환경, 문화, 의료 부족(SS6), 농업정책의 불만(SS7)이며, 경제는 농산물가격의 불안(ES1), 노력에 비해 낮은 소득(ES2), 영농자금의 부족과 경제적 부담(ES3), 대출 부담(ES4), 영농확장의 어려움(ES5)이다. 그리고 영농만족은 농업이 기쁨과 보람(FS1), 농업의 나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FS2), 농업의 선택은 자랑스러움(FS3), 소득수준은 적절(FS4), 농업은 좋은 직장(FS5), 보수는 타산업과 비교하여 적정(FS6)이며, 이농의향은 가끔 농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LI1),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음(LI2), 이농을 생각하고 있으나 여건이 안됨(LI3), 보수와 신분이 보장되면 언제든지 이농(LI4), 이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LI5)이다. 그리고 조사자 특성은 연령, 부모동거, 영농경력, 영농유형, 지역사회 활동, 농가소득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가족, 사회, 경제)가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만 19~39세의 청년농업인이며, 이들은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년농업인 대상자의 연령, 설문대상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전국 4H 회원 중 청년농업인 4H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기간은 사전과 본 조사를 포함하여 2021년 5월 24일~5월 28일까지 진행되었고, 청년농업인 4H회원 중 123명이 응답하였다.

수집된 설문의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였다. 그리

고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영농만족, 이농의향의 차이는 t검정과 ANOVA분석을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스트레스, 영농만족, 이농의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이농의향에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히 이농의향 유무만을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설정된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인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령은 20대 63.4%, 30대 36.6%로 평균연령은 29.1세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동거가 52.0%, 비동거가 48.0%이며, 영농유형은 원예가 37.4%, 경종 31.7%, 특용 16.3%, 축산 14.6%이다. 이들의 영농경력은 5년 이하가 68.3%, 6년~9년 이하 21.1%, 10년 이상 10.6%이며, 평균 경력은 4.6년이었다. 지역사회 활동은 활동하다가 65.9%, 활동하지 않다가 34.1%로 지역사회 활동이 더 많았다. 농가소득은 2천만원~4천만원 미만 38.5%, 2천만원 미만 27.6%, 6천만원 이상이 25.2%, 4천만원~6천만원 미만 18.7%이고, 평균 소득은 5,783만원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스트레스,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의 차이 검증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검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영농유형, 영농경력, 농가소득은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고, 부모동거, 지역사회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Division		N	%
Age	20s	78	63.4
	30s	45	36.6
Living with parents	Non-living	59	48.0
	Living together	64	52.0
Farming type	Agriculture	39	31.7
	Horticultural	46	37.4
	Livestock	18	14.6
	Industrial crop	20	16.3
Farming career	Less than 5 years	84	68.3
	Less than 6-9 years	26	21.1
	For more than 10 years	13	10.6
Community activities	Activity	42	34.1
	Inactivity	81	65.9
Farm household income	Less than 20 million won	34	27.6
	Less than 20 to 40 million won	35	28.5
	Less than 40 to 60 million won	23	18.7
	More than 60 million won	31	25.2

회 활동은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의 경우 지역사회 활동은 비활동이 3.71점(.93), 활동이 3.30점(.75)으로 비활동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높았다. 하위변수 중 가족 스트레스에서 부모동거는 동거가 3.48점(1.20), 비동거가 2.84점(1.26)으로 동거를 하는 경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지역사회 활동은 비활동이 3.55점(1.28), 활동이 2.98점(1.22)으로 비활동이 높았다. 결국,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족 스트레스가 부모와의 비동거에 비해서 높았다. 사회적 스트레스에서 지역사회 활동은 비활동이 3.72점(1.13), 활동이 3.10점(1.00)으로 비활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청년 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영농만족, 이농의향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영농만족, 이농의향의 차이 검증은 Table 4와 같다. 부모동거는 비 동거집단이 3.09점(1.01), 동거집단이 2.71점(1.08)으로 비 동거집단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46). 지역사회 활동은 활동 집단이 3.17점(.95)이고 비 활동 집단이 2.35점(1.06)으로 활동 집단이 영농만족도가 높았다. 농가소득은 6천만원 이상이 3.42점(.96)으로 가장 높고, 4천만원~6천만원 미만 3.01점(1.11), 2천만원~4천만원 미만 2.64점(.90),

2천만원 미만 2.59점(1.1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 Scheffe: d>a,b).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영농만족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농의향은 지역사회 활동에서 비 활동 집단이 3.82점(.88)이고 활동집단이 3.02점(1.14)으로 비 활동 집단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3. 청년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영농만족이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청년농업인의 이농의향에 관련 정도를 파악하는 데 단순히 이농의향 유무만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이농의향은 리카드 척도의 변수로서 차이가 동일하지 않은 순서를 지닌 변수로 항목별로 오류를 제거하고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삼분형 변수로 재설정하여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이농의향 정도에 따라 로짓분석을 위해서, 이농의향이 없는 집단(1,2: N=32), 이농의향이 불명확한 집단(3: N=35), 이농의향을 표명한 집단(4,5; N=56)을 삼분형 변수(1, 2, 3)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영농만족, 직무스트레스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순서형 로짓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MFI $\chi^2=87.038$, p=0.000),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를 나타내는 Nagelkerke R²는 0.575, 0.662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의 이농의향에 영농형태($\beta=0.442$, <.05), 영농만족($\beta=2.012$, <.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중 영농만족은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나머지 변수들은 정(+)의 영향이 있었다. 즉, 청년농업인의 영농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농의향에 대한 확률이 0.136배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예, 축산 및 특용작물의 영농형태가 정(+)의 영향을 주었고, 영농형태에 따라 이농의향에 대한 확률이 1.588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가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중 가족스트레스($\beta=0.716$, <.01)와 사회적스트레스($\beta=0.594$, <.05)가 이농의향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이농의향이 상승할 비율을 나타내는 승산비(Odds Ratio)는 각각 2.046, 1.810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 중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이농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Difference in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Stress		Sub-variable					
				Family		Community		Economic	
		m	sd	m	sd	m	sd	m	sd
Age	20s	3.39	.91	3.20	1.36	3.25	1.12	3.86	1.20
	30s	3.53	.69	3.14	1.09	3.42	1.02	4.23	.87
	t(p)	-.883(.379)		.239(.811)		-.823(.412)		-1.950(.054)	
Living with parents	Non-living	3.36	.74	2.84	1.26	3.33	1.06	4.13	.97
	Living together	3.52	.91	3.48	1.20	3.29	1.12	3.88	1.21
	t(p)	-1.021(.309)		-2.898(.004)*		.203(.839)		1.296(.198)	
Farming type	Agriculture	3.39	.74	3.35	1.24	3.15	.99	3.77	1.14
	Horticultural	3.39	.90	3.05	1.27	3.17	1.12	4.17	.91
	Livestock	3.42	.92	3.34	1.28	3.37	.99	3.61	1.43
	Industrial crop	3.69	.79	2.98	1.30	3.90	1.12	4.38	.98
	F(p)	.687(.561)		.662(.577)		2.619(.054)		2.556(.059)	
Farming career	Less than 5 years	3.52	.82	3.30	1.23	3.38	1.07	4.01	1.15
	Less than 6-9 years.	3.16	.85	2.76	1.44	3.03	1.09	3.88	1.11
	For more than 10 years.	3.55	.81	3.18	.95	3.47	1.12	4.17	.80
	F(p)	1.973(.143)		1.842(.163)		1.153(.319)		.293(.746)	
Community activities	Activity	3.71	.93	3.55	1.28	3.72	1.13	3.92	1.17
	Inactivity	3.30	.75	2.98	1.22	3.10	1.00	4.04	1.07
	t(p)	2.639(.009)*		2.394(.018)*		3.139(.002)*		-.538(.591)	
Farm household income	Less than 20 million won	3.55	.94	3.40	1.29	3.26	1.16	4.15	1.23
	Less than 20 to 40 million won	3.66	.74	3.27	1.22	3.70	1.07	4.14	1.08
	Less than 40 to 60 million won	3.37	.70	3.32	1.26	3.23	1.01	3.63	1.02
	More than 60 million won	3.15	.84	2.72	1.24	3.00	.99	3.94	1.01
	F(p)	2.370(.074)		1.882(.136)		2.474(.065)		1.276(.286)	

*p<0.05

V. 요약 및 시사점

정부나 지자체 등의 청년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은 영농정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족, 사회, 경제)가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4H회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는 가족구성과 지역사회 활동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가족 스트레스는 부모동거, 지역사회 활동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는 지역사회 활동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년농

업인의 영농만족은 부모동거, 지역사회 활동,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이농의향, 지역사회 활동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 중 가족 스트레스와 사회 스트레스는 이농의향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영농만족을 증대시켜 이농의향을 줄이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의 단계별로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는 영농만족과 부(-), 이농의향과 정(+)의 인과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감소시켜야 이농의향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유형을 구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이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가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

Table 4. Differences in farming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the farm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Farming Satisfaction		t/F	p	Intention to Move to Farming		t/F	p
		m	sd			m	sd		
Age	20s	2.83	1.12	-.895	.373	3.28	1.24	-.220	.826
	30s	3.00	.95			3.32	.92		
Living with parents	Non-living	3.09	1.01	2.018	.046*	3.19	1.16	-1.005	.317
	Living together	2.71	1.08			3.39	1.10		
Farming type.	Agriculture	2.94	1.14	1.735	.164	3.15	1.08	1.697	.171
	Horticultural	2.94	.91			3.18	1.05		
	Livestock	3.18	1.16			3.33	1.24		
	Industrial crop	2.44	1.08			3.79	1.21		
Farming career	Less than 5 years	2.76	1.01	2.178	.118	3.40	1.11	1.672	.192
	Less than 6-9 years	3.21	1.13			2.95	1.21		
	For more than 10 years	3.12	1.11			3.26	.98		
Community activities	Activity	2.35	1.06	-4.413	.000*	3.82	.88	3.952	.000*
	Inactivity	3.17	.95			3.02	1.14		
Farm household income	Less than 20 million won(a)	2.59	1.11	4.686	.004* Scheffe (d>a,b)	3.25	1.22	2.319	.079
	Less than 20 to 40 million won(b)	2.64	.90			3.66	.95		
	Less than 40 to 60 million won(c)	3.01	1.11			3.28	.97		
	More than 60 million won(d)	3.42	.96			2.94	1.23		

*p<0.05

Table 5. The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 and farming satisfaction of young farmers on intention to leave the farming

Variables	Model 1(Farming Satisfaction)					Model 2(Stress)				
	β	SE	Wald	p	OR	β	SE	Wald	p	OR
Age(20s, 30s)	0.716	0.449	2.545	0.111	2.047	0.550	0.475	1.342	0.247	1.733
Living with parents(Living together)	-0.150	0.431	0.122	0.727	0.860	-0.102	0.461	0.049	0.825	0.903
Farming type(Horticultural, Livestock)	0.442 **	0.212	4.341	0.037	1.556	0.482 **	0.229	4.421	0.035	1.620
Farming career(Less than 5 years)	0.009	0.348	0.001	0.980	1.009	0.021	0.380	0.003	0.956	1.021
Community activities(Inactivity)	0.470	0.482	0.950	0.330	1.600	0.357	0.544	0.430	0.512	1.429
Farm household income	0.213	0.209	1.040	0.308	1.238	0.287	0.229	1.574	0.210	1.333
Farming Satisfaction	-2.012***	0.307	42.862	0.000	0.134	-1.712 ***	0.325	27.757	0.000	0.181
Stress	Family					0.716 ***	0.235	9.311	0.002	2.046
	Community					0.594 **	0.284	4.355	0.037	1.810
	Economic					0.050	0.264	0.037	0.848	1.052
Threshold 1(1→2)	-5.198	1.309	15.760	0.000		-0.209	1.884	0.012	0.912	
Threshold 2(2→3)	-3.001	1.240	5.860	0.015		2.370	1.903	1.551	0.213	
-2Log Likelihood			172.466 ***					154.555 ***		
MFI χ^2			87.038					107.721		
Nagelkerke R ²			0.575					0.662		

* p<0.1, ** p<0.05, *** p<0.01, OR=Odds Ratio(exp(B))

Note: The dummy variables are living with parents(Ref. non-living), farming type(Ref. Agriculture), community activities (Ref. inactivity)

둘째, 청년농업인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가족 스트레스가 높았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만의 교육이 아닌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교육하는 포괄적인 갈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농업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이농의향이 높았다. 청년농업인(후계농과 창업농)의 지원자금에 있어 보증한도 상향과 비율의 확대, 보증대상의 요건 완화를 통한 우대보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영농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농지 매매와 임대에 있어 청년농업인이 우대조건에 있지만, 농촌현장에서 구입할 농지가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거나, 본인이 신청 시 토지주가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를 위한 농촌의 유휴 공간을 활용, 중앙/지역차원의 임대농장의 운영, 농지법 개선 등을 통해 진입장벽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년농업인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 가족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낮았다. 이것은 청년농업인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또래나 선배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교육받으면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존의 동아리 사업과 품목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영농활동은 특성상 장시간 열악한 외부조건과 경제적 부담, 감노동이 심한 직업군으로 가정까지 일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프로그램이나 상담창구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기적인 농업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농촌과 농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과 이농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와 영농만족, 이농의향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다만, 청년농업인 중 4H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청년농업인의 대표성에 있어서 조사 규모의 아쉬움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조사대상의 확대를 통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1. 08)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References

1. Ahn, S. W., 1997, Understanding the Conception of Stress regard in the Oriental Medicin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3(1): 119-151.
2. An, D. S., 2021, The Effect of Young Farmers' Stress on Farming Satisfaction and Giving up farming and leaving Intention, Thes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3. Bae, M. H., 1979, Changes in the structure of farmers' consciousness and farming, Theological Perspective 46: 138-158.
4. Cho, H. S., Gim, G. M. and Choi, K. R., 1999, A Study on the Stress and Coping with Farm Work of Rural Wome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0(2): 37-51.
5. Choi, I. S. Lee, H. S. and Lim, S. I., 2013, Research for Conceptual Diagram in Job Stress of Child Care Teaching staff,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2(4): 277-292.
6. Choi, Y. C., Park, E. S., Ko, J. S., and Cho, Y. S. 2007. Present Status of Upbringing Young Farmer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4(2): 351-371.
7. Chung, S. K., 2001, Understanding stress: Psychosocial Aspect,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19(1): 66-80.
8. Gweon, T. K. and Jang, D. H., 2021,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young farmers' self-reliance and farming continu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7(2): 59-67.
9. Han, M. H., 2019,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Satisfaction and a Key Crop Selection Factor Analysis of Young Start-up Farm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 Hankyoreh., 2020, Gyeongsangbuk-do Province also selects 9 "Youth Farmers Getting Salary", 2020.06.15. (Accessed on April 18, 2021).
11. Jung, K. E.,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Successive Agricultural Workers,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21: 201.
12. Jung, T. Y., 2015, Effects of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urnover Intent for Flight Attendants,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11(4): 127-153.

13. Kang, H. G.,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Job Characteristics on Their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2): 355-375.
 14. Kim, C. H., 1996, An Empirical Study on the Farming Abandonment Phenomenon and Its Countermeasure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15. Kim, E. J. and Kim, P. S., 2021, The Effect of Job Stress of Civil Servants on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33(1): 93-121.
 16. Kim, E. Y., 2011, Factors Affecting the Stress of Women Employed in Agricultural Sector, Theses, Gyoengsang National University.
 17. Kim, G. H., 2017,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Promotion of Youth Farmers in Chungcheongnam-do, ChungNam Institute.
 18. Kim, H. J. and Baek, H. S., 2014,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the turnover intention of fire fighter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18(1): 95-106.
 19. Kim, K. H. and Kang, S. W., 2013, The Impact of the Care Worker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4: 275-304.
 20. KOSTAT., 2020, Farm households (1970-2019) during the Agricultural Census.
 21. Lee, C. B.,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mployed Business men's Job Stress and Their Intra-Family Conflict, Theses, Yonsei University.
 22. Lee, E. C., 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a young agricultural pre-founder to start, Thesis, Chung-Ang University.
 23. Lee, E. Y., 2014, A Study on facilitating factors for young farmers learning organization, Thesis, Hanyang Cyber University.
 24. Lee, I. S., 2021, The Effect of Internal Customer's Bad Behavior 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Ph.D. Thes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5. Lee, K. H., Koh, S. B., Kang, D. M., Chung, J. J., Kin, H. R., Kim, I. A., Lee, K. S., Hyun, S. J., Lee, K. M., Yoon, J. H., Kim, S. K., Cho, I. J., Choi, J. K., Oh, S. S., Cha, B. S. and Chang, S. J., 2011, Job Stress and Self-perceived Fatigue in Korean Farm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3(2): 213-224.
 26. Lee, T. H. and Lee, C. W., 2013, The Effects of Geriatric Care Work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urnover Intent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4(2): 643-672.
 27. Lim, K. Y., 2021, The Effect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ment Workers, Ph.D. Theses, Woosuk University.
 28. Park, K. J., Noh, Y. S. and Shin, J. H., 2012, A study about The ROKAF Pilots' Job Satisfaction Level and Intention of Turnov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20(1): 1-12.
 29. Park, S. Y., Lee, S. W. and Bae, J. P., 2018,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s on Job Stress and Job Turnover Intension among Female Low-wage Work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5): 241-255.
 30. Park, Y. I., 1992,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easant Migration in Korea since 1960's, Theses, Dong-A University.
 31. Pusan., 2018, There is no "future" for Busan agriculture, 2018.01.22.(Accessed on April 18, 2021).
 32. Yi, H. M., 2019, Factors influencing young farmers' choice of the farm diversifi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5(2): 75-87.
 33. Yoo, C. K. and Park, J. H., 2004, The study of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by job strees of hotel employees, *Journal of Tourism Services Research* 4(1): 177-201.
 34. Yoo, K. E. and Go, S. S., 2015,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decision factors of people's intention to go back to city from rural residence, *Housing Studies* 23(4): 99-131.
 35. Yoon, J. H., Lee, K. H., Hahn, K. Y., Oh, S. S., Chang, S. J., Cha, B. S., Min, S. H., Lee, K. S., Chae, H. S., Eom, A. Y. and Koh, S. B., 2011, Suicide Trend of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nd Age Standardized Proportion Mortality Ratio According to Occupational Groups in Korea:1993-2007,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3(21): 173-182.
-
- Received 24 January 2022
 - First Revised 23 February 2022
 - Finally Revised 11 March 2022
 - Accepted 29 March 2022